

Monthly Report 4月

우리..너무 놀았나?



목차

4월 일정

깐피 소개 ver.2

우리가 사는 공간

Caritas 직원 소개

Youth Develop Program

쉬어가는 코너 1

Community Develop Program

쉬어가는 코너 2

쫄츠남 파티

Travel in Siem Reap

Caritas Opening Ceremory

쉬어가는 코너 3

개인에세이

4월 일정



깁띠 소개 ver.2



[누구인지 알아맞혀보세요]



오렌지

강 닦음

4월의 비행청소년.
자주 프놈펜으로 가출
을 감행함.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존박

얼굴이 김

4월의 바닥재.
거실 바닥에 거주.
바닥인지 사람인지.

"....."



비버

작고 까맣고 방방댐

4월의 식기세척기.
맨날 설거지 가위바위보 걸림.

"또 나야?!"



짱구

눈썹이 짱구

4월의 병자.
안 아픈 곳이 없음.
먹고 싶은 것도 많음.

"삼계탕 먹고 싶어"



만두

반짝이는 이마

4월의 홍진경.
CDP로 많이 지침.
밤에 오이가 됨.

"피곤해"

우리가 사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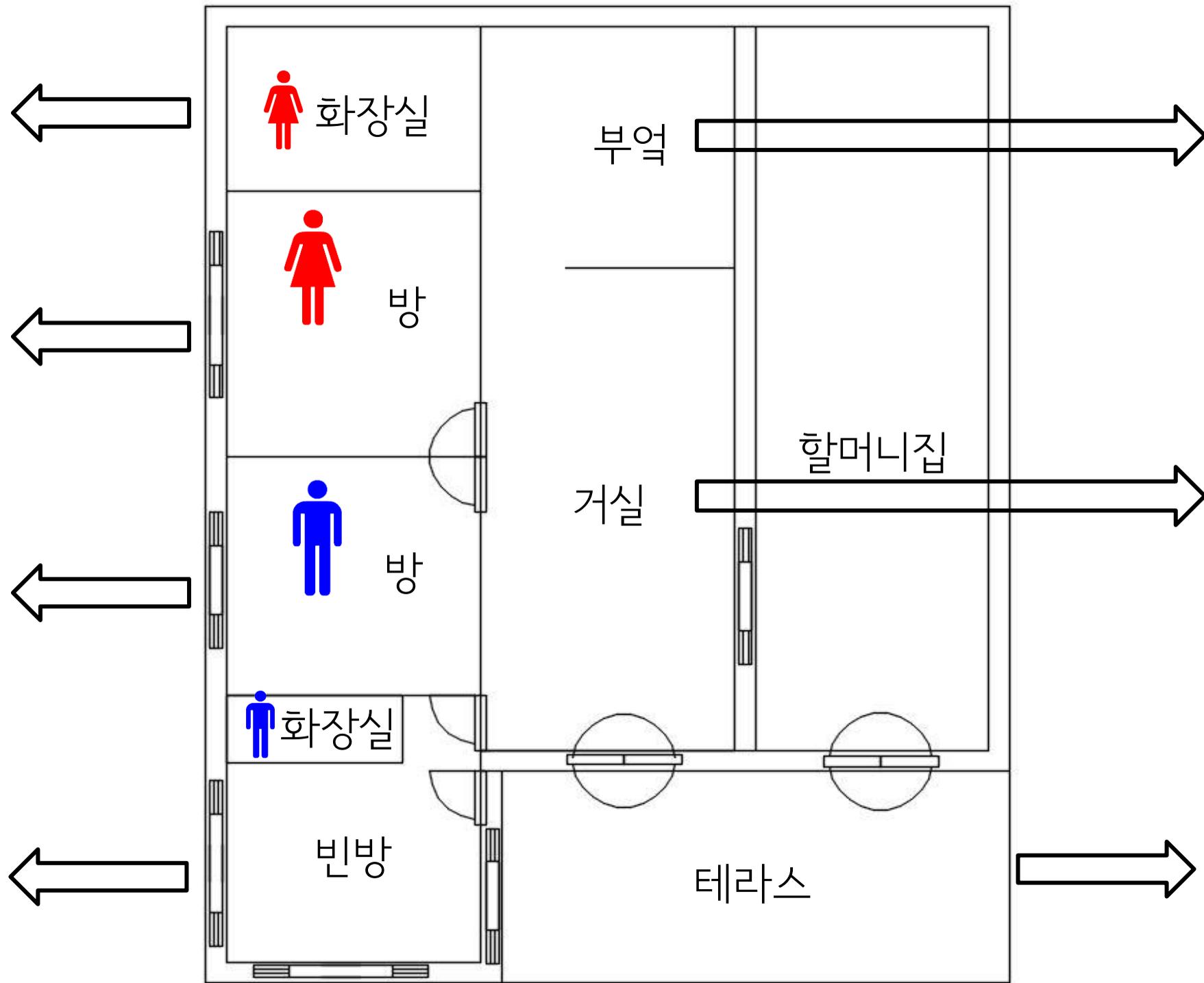


집 앞 마당 전경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캄보디아 깐달 따끄마오 따끄덜 마을에 있다.
따끄마오는 수도 프놈펜으로부터 약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이다.
수도 프놈펜과 가까워 도시의 편리함도 누릴 수 있고, 작은 마을의 정겨움과 아름다움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망고 나무가 감싸고 있고 도마뱀, 개미들과 모기들이 실 틈 없이 돌아다니는 이곳은 우리의 러브 하우스다.

거실 전경





자주 출몰 하는 장소



김민주 (22)

출몰 하는 곳:
테라스

해먹이 있어
글 쓰면서 자기
용이함



차현정 (24)

자주출몰 곳:
평상

집 앞 망고나무에
달린 망고와 하늘을
보며 마음에 안정을
찾음



이지수 (25)

자주출몰 곳: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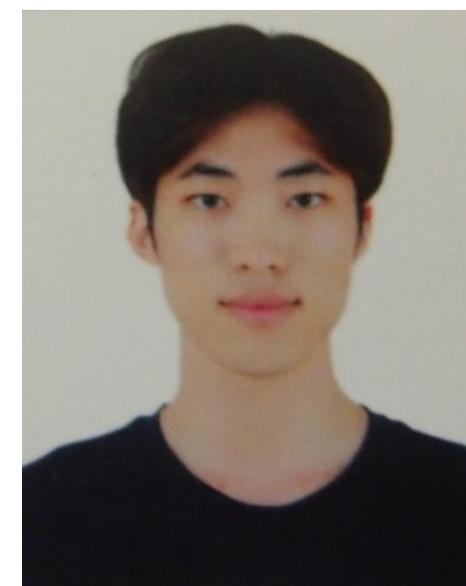
와이파이로
속세와 소통을
할 수가 있음



윤원섭 (22)

자주출몰 곳:
없음

집에 잘 있지
않음



국승일 (23)

자주출몰 곳:
거실

시원한 대리석
바닥과 선풍기는
사랑임



Caritas 직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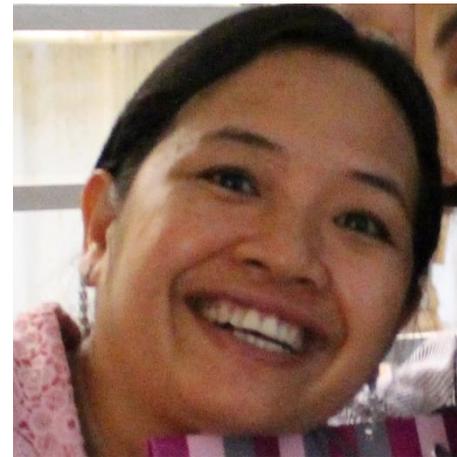
까리따스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여러 직원분들 그리고 늘 유스들과 함께 낮이고 밤이고 함께하는 까리따스 가족을 소개하려 한다. 이미 했어야 하지만, 3월에는 깐띠들의 캄보디아 적응으로 많은 스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지금에서야 까리따스 직원·가족을 소개한다.

맹
(Meng)



Caritas Kandal Office Coordinator
바쁜 분, 숨은 딸 바보, 사우나 사장님,
"굿모닝~"

피룸
(Phirum)



YDP Program Manager / RaonAtti Coordinator
순수함, 친절함, 웃음이 많음, 소녀같음,
깐띠들의 캄보디아어 선생님

탄
(Thann)



YDP Team Leader
무표정, (하지만) 친절함, 새신랑,
이여이(할머니)의 셋째 손녀사위, 아침에 기분이 최고

세크데이
(Rossekdey)



CDP Team Leader

짠땅(찬투를 놀림), 박명수 닮음, 유일한 가톨릭신자,
알고보면 따뜻하고 친절한 남자, "한국 가고 싶니?"

리티
(Rithy)



CDP Member

방긋방긋, 대놓고 친절한 남자,
"아롱 쑤어쓰다이~^^"

쌘낭
(SamNang)



CDP Member

힘, 사람 좋음, 즐림, CDP의 에너지이저,
상사(세*@!)의 개그코드에 대한 지침, "유 노 블라블라?"

이백
(Yi Pak)



YDP Member

뽀냐의 아빠, 아들 바보, 깐피에게 맨날 웃어주심,
카메라를 들이대면 환한 자동미소장전

트라
(Chetra)



CDP Member

귀여움, 까리파스 멧쟁이1,
피룸이 핍쩍(도마뱀) 닮았다고 함

소피읍
(Sophea)



YDP Member

까리파스 멧쟁이2, 잘생김, 어깨깡패,
깐피들의 모토뎀 이용에 걱정함

피읍
(Pheap)



CDP Member
까리파스 술 서열 3위, 쏘맥사랑, 바보웃음

싸므은
(Sameun)



CDP Member
까리파스 술 서열 1위, 짱구담음,
깐띠들에게 매년 선풍기를 돌려주심

소포안
(Sophorn)



Caritas Kandal Account
장난끼가 넘침, 철저한 회계정신, 터프함

쏭지웃
(SokChear)



YDP Member
우때이 아빠, 미술선생님, 까리파스의 예술가,
지치면 안경벗음

어덤
(Outdom)



YDP Member
까리파스 술 서열 2위, 딸(비싸이)바보,
이여이의 첫째 손녀사위, 베스트드라이버, 덩실덩실,
상남자, "헤헤헤~"

배잉
(Peng)



YDP Member
궁금한 분, IT 선생님,
맨날 IT 교실에 계셔서 많이 못 친해짐

봉 브언 (Bong Won)



Caritas Kandal Office House Keeper
꽃모자, 여성스러움에 숨은 터프한 오토바이 운전,
차끄다으의 머리 달린 생 닭을 손질하던 포스,
깐띠들만 보면 웃음이 폭발하심, "싸앗~"

봉 나 (Bong Na)



Caritas Kandal Office Cooker
수줍음, 항상 부엌에 계심, 붉은 볼, 소박을 그리워하심,
늘 망고를 주심

봉 뵤 (Bong Vann)



Caritas Kandal Office Gard
몸 좋음, 숨은 까리따스 춤꾼, "떠으 나?!"

니코(Nico)



Caritas Kandal Office Dog
지수 깐띠의 친구, 가출에 도가 텨,
멍청해 보이지만 말을 알아들음, 사랑사랑 꼬리



Youth Develop Program



English 1 Class

4월의 영어1수업은 알파벳을 복습하는 게임으로 시작했다. 그 뒤로 어려운 발음을 연습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공부했다. 주제를 정하고, 이에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4월에는 Khmer New Year와 Opening Ceremony 등 여러 행사가 있어 수업이 많이 취소되었다. 계획만큼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과 수업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 때문에 한동안 수업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혼란의 4월을 보내던 중, 마지막 주에 유스들과 함께 무엇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시간을 통해 정확한 수요를 알 수 있었고, 깐띠들과 유스들이 원하는 수업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었다.



English 2 Class

애초에 영어2 수업을 기획했을 때는, 상황 별 회화, 영어 연극, 토론 등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 말하기 연습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어 2의 학생들도 아직 기초 회화 수준이라, 처음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

수업은 문법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틈틈이 말하기 연습을 하였다. 1주일에 1회 정도 독해지문 숙제를 주었다. 문법은 현재 과거형/ 진행형/ 미래형 시제, 조동사, 비교급까지 진행하였다.

4월에는 수업 진도에 있어서 조금해졌다. 이에 모든 것을 수업시간에 해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수업방향이 지식전달에서 방법전달로 바뀌면서, 유스들과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한층 풍성해진 수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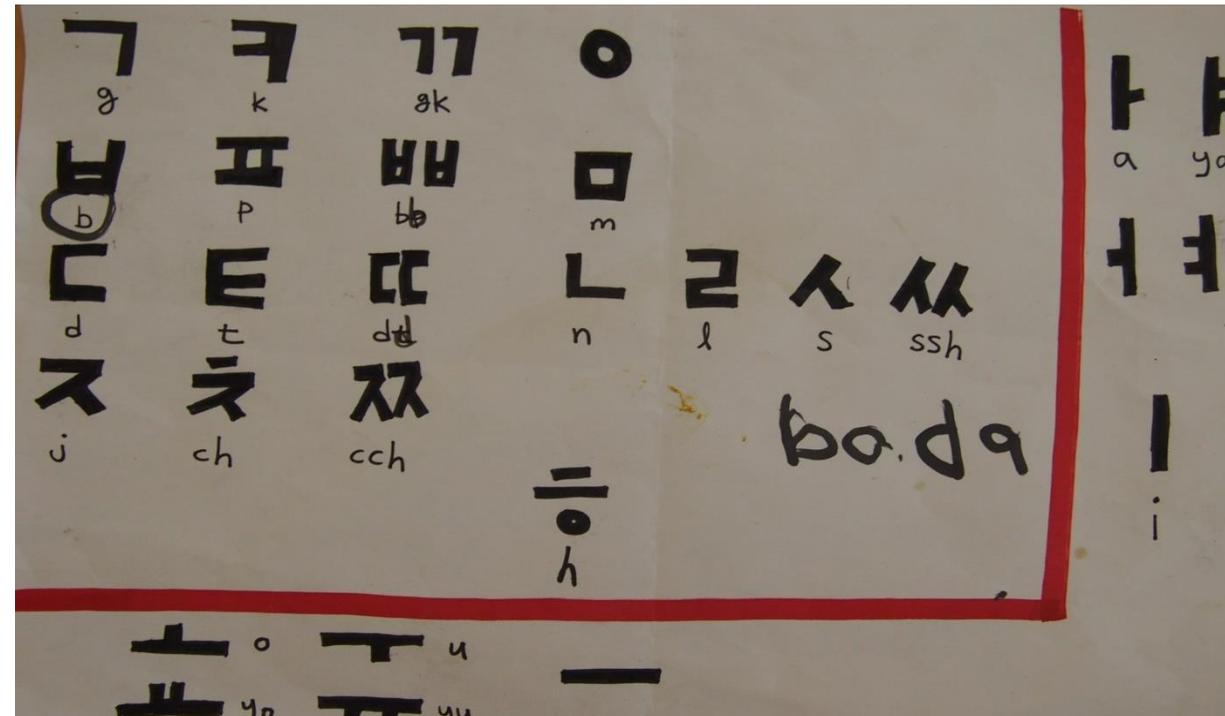


한국어 수업

한글의 자음, 모음부터 배우고 싶어하는 유스들의 요구에 따라 기억, 니은부터 수업을 진행했다. 한 달 간 모든 자음, 모음과 받침 소리까지 끝낸 상태이다. 유스들은 스스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수업을 구성할 때 한글의 기본부터 배우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한국어 공부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싶어했다. 평소에도 깡띠들에게 한국어로 말을 거는 유스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발음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매 시간 발음 복습을 하고 있다.

한국어 시험(EPS-TOPIK)을 준비하는 유스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문법을 가르쳐주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더 심층적인 문법과 어휘가 요구되어서 깡띠들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Not tell them to study, but teach them how to study."

시엠립 여행 중 만난 인연, 캄보디아의 대학생 청년 소피어가 내게 해준 조언이었다. 그 이후, 나는 모든 걸 해주어야겠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았고, 수업 방향을 지식전달에서 방법 전달로 바꿀 수 있었다. 4월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



많이 공부하고 준비 잘 해야겠다.



유스들이 영어,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친구. 영어를 하지만 크메르어를 못하는 나.
제대로 된 소통이 힘들지만,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 내가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 아직도 부담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4월은 또 여러 행사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의사소통이나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 자신에게 수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힘들었다..



마을아이들 수업

마을아이들 수업을 처음 진행한 한 달이었다. 첫 시간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혼란만 겪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피룸 씨의 도움을 받아 규칙을 세우고 공부와 놀이를 섞은 수업 시간을 구성하였다.

이 달에는 알파벳과 그에 따른 단어를 공부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업 계획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수업이라 아 띠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웠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해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TV에서 나오는 아이들과의 눈물겹게 감동적인 순간은 없다. 한국이나 여기나, 아이들은 똑같다.
천방지축이고 골치 아프다. 허허허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하다 보니 아무 것도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아가면서 다음 달에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생각이다.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아이들. "티쳐" 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인가 고민하게
된다. 아이들 수업이 있을 때마다 걱정부터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해맑게 웃으며 공부하자고 졸졸 따라오는 아
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



수원 YMCA에서 나름 보람을 느끼며 아이들과 놀아주었기에
이곳에서 가장 자신이었던 활동이었다. 지금은? Welcome to Hell



사실 일주일에 한번만 아이들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여러 측면을 많이 마주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 너무 예쁜 아이들이지만 때때로 아이들끼리 싸우고, 큰소리를 낼 때면 난감해졌다



아띠 데이 - 스포츠데이

매주 목요일에는 한국어, 영어 수업 대신에 유스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4월에는 총 3번의 아띠 데이를 진행했다. 2일은 스포츠 데이, 9일은 쿠킹데이, 23일은 350PPM으로 구성했다.

스포츠데이에는 피구를 했다. 그들에게는 생소한 게임이라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들의 운동신경은 대단했다. 게임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했다. 다음 번에는 여왕 피구를 하고자 했지만 게으른 아띠들은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띠 데이 - 쿠킹데이

쿠킹데이 때는 김밥을 함께 만들었다. 이 날은 까리따스 내 쫄츠남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스들이 함께했다. 간띠들은 미리 김밥 속 재료를 준비하였고 랩을 이용해 김밥을 말았다. 유스들은 먹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을 더 재미있어했다.

김밥을 만든 뒤 까리따스 직원, 유스들과 한국 음식, 캄보디아 음식을 함께 먹었다. 단무지도 없는 현지화된 김밥이었지만 맛있게 먹어주어서 행복했다.



아띠 데이 - 350PPM

깐띠들은 매 달 아띠데이 때 350ppm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350ppm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깐띠들이 유스들에게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적인 것 같아 고민이었다. 하지만 센터 주변에 보이는 쓰레기문제와 세계 곳곳에서 환경 운동을 하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첫 350ppm데이 때는 '환경'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350ppm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에는 유스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350ppm생활 수칙을 적어보았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숙한 깐띠들을 잘 따라와준 유스들에게 고맙다.





아띠 데이가 아니라 유스 데이라고 부르고 싶다.
아띠 데이를 하고날 때마다 유스들에게 너무 고맙고 유스들이 한층 더 좋아진다. 헤헤

유스들이랑 더 많이 놀아야겠다.



진행이 서툰 우리를 잘 따라와줘서 유스들에게 너무 고마웠어.
아띠데이가 아닌 날에도 유스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

카리타스 Youth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아띠 데이!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나날이 많아 미안할 때가 많다.



매번 서툴게 준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의 아띠데이에 웃으면서 함께 참여해주는 유스들에게 고마움을
느낌과 동시에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만... 좀처럼... 지친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





쉬어가는 코너 1

연애해듀오 ♡ 결혼해듀오 ♡

간띠들의 지친 몸과 맘을 달래주는 리버사이드의 유일한 서양식 카페 'RoseWood'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심심해진 간띠들은 13기 아띠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문득 모두가 보고 싶어진 간띠들은 13기 아띠들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다 '내가 만약 이성이었다면 **연애하고 싶은 아띠는 누구? 결혼하고 싶은 아띠는 누구?**'를 생각해보았다.
 모두가 보고 싶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본 것이므로 부디 그저 재미있게 봐주길.. ♡



썩찌웃(만 20살)

연애



사친(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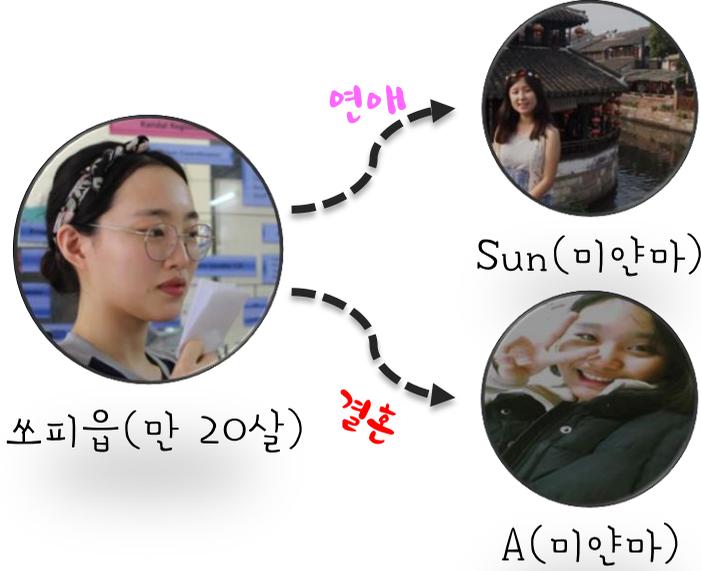
결혼



분낙(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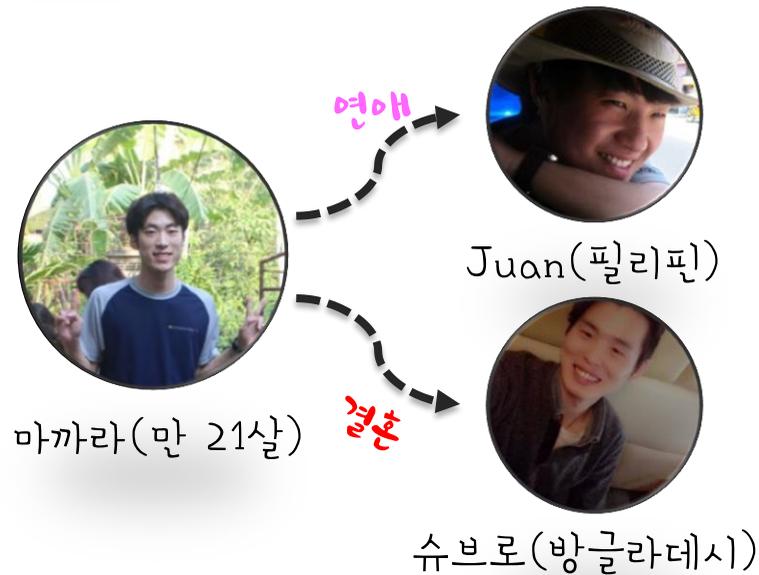
“승희형은 착하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줄 거 같아요”

“주현이형은 가정에 충실하고 집안일을 잘 도와줄 거 같아 보여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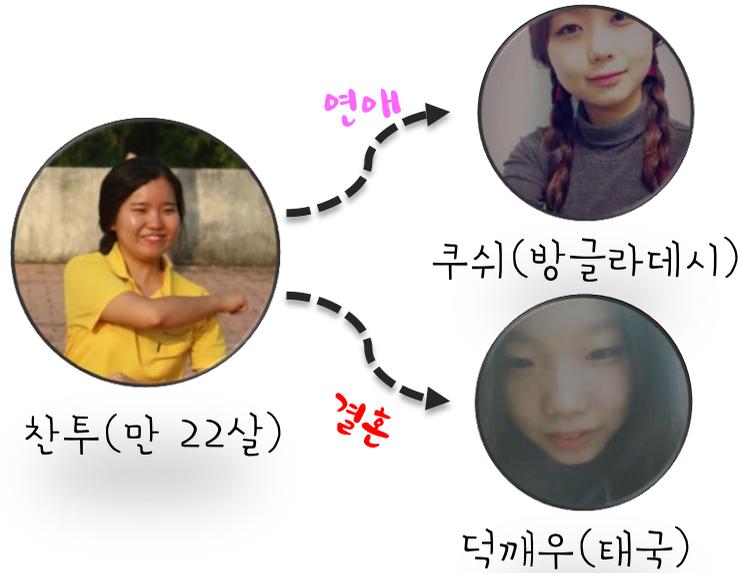
“나를 구속하지 않고, 친구처럼 연애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아이를 잘 키울 거 같고, 일 마치고 집에 오면 나를 기쁘게 해줄 거 같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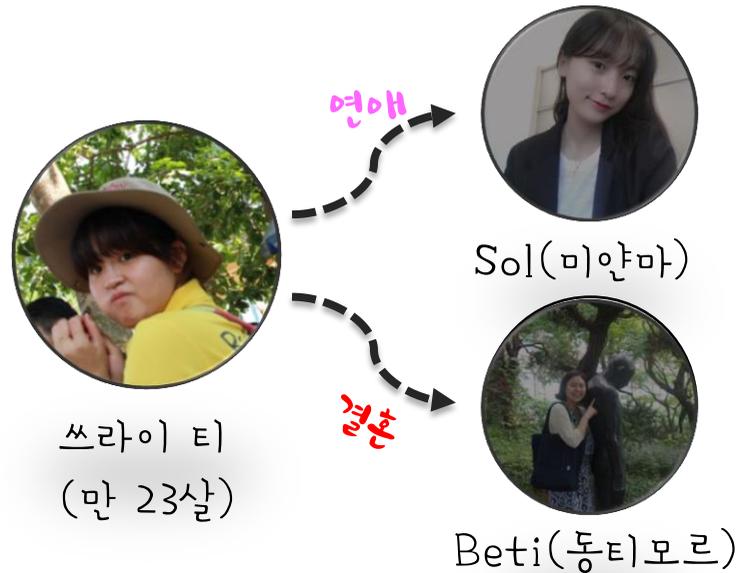
“달콤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고 싶다 ㅎㅎ”



“그녀만의 세계에 노크하고 싶어 헤헛”

“왠지 편할 것 같은 매력? ㅎㅎㅎㅎ”



“통통 튀는 매력으로 나를 늘 긴장하게 할거 같아”

“잘 이해해주고, 남자여도 충분히 의지되고, 의지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

Community Develop Program



4월이 되고 가장 먼저 깐띠들이 만나게 된 일은 CDP일이였다. CDP는 Community Develop Program의 약자다. 마을의 농부님들과 함께 Home Gardening, Chicken Raising, Hydroponic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4월의 첫날 CDP Member인 세끄데이씨와 썸낭씨와의 미팅을 하였다. 첫째 주에는 여러 마을을 방문하여 이전 기수들의 활동 결과를 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주에는 스태프 어덤씨와 봉반 그리고 유스들의 도움으로 Caritas 센터 내에 울타리를 만들었다.

넷째 주에는 봉팔 농부님의 댁에서 밭을 일구었다. 다섯째 주에는 이여이 왕 농부님 뒷마당에 스태프 썸낭씨와 함께 Hydroponic을 설치하는 일을 하였다.



CDP 울타리 만들기

CDP 첫 활동으로, 까리따스 센터 내에 대나무 울타리를 만들었다. 3일 동안 진행했으며, 스태프 어덤, 봉반, 그리고 유스들의 도움이 있어 잘 마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해 농부님과 함께 일하기 전에 미리 톱, 망치, 도끼 등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어 유익했다.

까리따스로서는 울타리 덕분에 새로 경작한 채소밭을 센터 내의 닭들과 거위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첫 CDP활동이다 보니 몇몇 여성팀원은 수 차례 현기증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망고와 커피 등 비상 식량을 든든히 준비해가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현재까지 무사히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Home Gardening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깐띠들은 봉 팔 농부님과 함께 처음으로 필드에 나가 일을 했다.

오전 내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다. 3일간의 활동 끝에 깐띠들은 작은 경작지 3개를 일구었다.

이번 활동에서 깐띠들은 삽과 도끼 등의 도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뜨거운 날씨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팔 아버씨의 인자한 미소와 쉬는 시간 마다 주시는 맛있는 망고들 덕분에 행복했다.



Hydroponic

봉팔 농부님 댁에서 Home Gardening을 마치고 일주일 후, 하이드로포닉(Hydroponic) 설치작업을 시작했다. CDP 스태프 썸낭 씨와 농부님과 함께 4월 27일, 28일 이틀간 진행하였으며,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들을 연결하고, 나무를 자르는 등 하이드로포닉 설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하이드로포닉 작업을 하면서 깐띠들은 스스로가 더위에 쉽게 지침을 알아갔다. 또 점심시간 겸 휴식시간이 너무 길어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다.

첫 하이드로포닉 일이라, 잘 하지 못하는 깐띠들은 도움이 아니라 되려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농부님...





Hydroponic에 대한 설명을 듣고, 레포트를 읽었어. 그리고 이틀간 직접 필드에 나가 일을 해봤지.
하이드로포닉의 좋은 점 혹은 부족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하이드로포닉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식물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 같아~
또 친환경적인 농법의 이론이 적용되기도 하지!



하지만 아직 시장에 활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수경재배를 하고 계
신 농부님들 서로만 교류가 가능한 정도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농부님의 열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지속적으로 하이드로포닉을 통한 재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맞아! 지속적인 하이드로포닉은 건기에도 지속적인 재배가 가능해 시장규모가
확대된다면 가계수입에도 도움을 줄 거야!





살아오면서, 육체적 한계를 겪어본 적이 많지 않다. 24살, 이곳 캄보디아에서 육체 노동의 힘듦과 보람을 알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무사히 잘 할 수 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힘들지만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



하.....

흙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따가운 햇빛은 견딜 수 있지만, Hydroponic에 대한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하겠다.



일을 하는 순간에는 땀이 비 오듯 오고 햇빛 때문에 힘이 들지만, 그래도 땀 흘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일하고 나면 전보다 즐겁고 힘이 난다.



쉬어가는 코너 2

우리는 무엇을



나?

(얼었나?)



깐띠들이 캄보디아에 온지 50일이 넘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여행을 가고, 이야기 나누었다.
이 시점에서 각자가 수확한 것은 무엇일까?

“망고의 맛과 맥주의 맛?
저의 망매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 명의 아이
(비싸이, 반냐, 우दै이)를
짜장사랑하게 되었다(♡)”

“우연에서
인연으로”

“나의 장단점을 조금씩 찾았다”

“딱히 없다”



[약 50일 전, 출국 전 깐띠들]

쫄츠님 파티



졸츠남은 캄보디아의 새해이다. 캄보디아의 가장 큰 명절로, 농사가 가장 한가한 시기인 4월 중순 즈음에 7일정도 쉰다. 새해가 4월인 이유는 힌두교 달력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4월 9일 목요일, 맑음.

오늘은 까리따스에서 졸츠남 파티가 열렸다. 오전에는 스님들이 오셔서 불교의식을 치렀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눈가리고 아웅 게임 등 여러 재미있는 캄보디아 전통놀이를 했다.

저녁에는 캄보디아 식 카레에 빵을 찍어 먹었다. 저녁을 먹고는 춤을 추었다. 지칠 줄 모르는 그들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 들었다.

문화는 달랐지만 명절 전 사람들의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날 이었다. 참 재미있었다.

-마가라 어린이의 일기 끝.



4월 10일 금요일, 흐림.

오늘은 현정이, 승일이, 민주, 원섭이랑 계속 계속 월간보고서를 쓰고 있었다. 점심때 피룸언니가 스텝들끼리 쫄츠남파티를 한다 했다. 그래서 같이 놀기로 했다.

봉나가 해준 진짜 맛있는 꼬치구이도 먹고, 바게트에 버터를 발라 구워먹었다. 진짜 맛있었다.

피음이 쏘맥을 좋아해서 숟가락으로 탕!탕! 치면서 쏘맥을 만들어 마셨다. 그리고 민주랑 승일이 자리 옆으로 야자수나무 열매가 떨어졌다. 쓱지웃이 오토바이 헬멧을 가져다 주어서 민주랑 승일이랑 헬멧을 쓰고 놀았다. 원서비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늦게 돌아왔다. 늦게까지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스텝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좋았다. 정말 좋았다.

-쓰라이티 어린이의 일기 끝.



Travel in Siem Reap

Cambodia

우리는 2015년을 두 번 맞이하였다.

긴 쫄츠남 연휴를 맞아, 깐띠들은 시엠립 여행을 다녀왔다. 시엠립은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중에 명소였다.

첫날 우리는 숙소에 짐을 풀고, 거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시엠립을 둘러보았다.

시엠립의 거리에서는 캄보디아의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관광객들을 위한 카페와 고급음식점 그리고 술집들이 즐지어 있었다. 거리 곳곳에 있는 관광객들을 잡기 위한 툽툽(Tuk Tuk)아저씨들의 치열한 호객행위로 정신 없는 도시였다.



시엠립에 오면 꼭 방문해야 하는 3곳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 47개의 미소가 있는 '바이운 사원' 그리고 아시아 최대 호수인 '뚝레삽 호수'이다.

앙코르 유적지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이 걸린다고 한다. 마음 같아서는 천천히 모두 둘러보고 싶었지만, 재정난과 깡띠들의 체력의 문제로 저렴한 1일 코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밥 먹는데 있어서 돈은 아끼지 않았다고 카더라 ...



시엠립은 진정한 밤의 도시였다. 저녁이 될 무렵쯤부터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거리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우리가 여행하는 내내 시엠립은 밤이 되면 도시 자체가 클럽이나 다름없었다. 노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로 옆에서 하는 사람의 말도 들리지가 않았다.

일주일의 여행 기간 동안 우리는 라온아띠, 자원봉사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시엠립에 있다는 것을 즐기려고 했다.

우리는 여행을 다녀왔다.





시엠립. 앙코르. 쏘츠남파티. 정신병원 같은 호스텔. 채식주의자 아저씨. 호스텔에서의 노숙.
나이트마켓. 마니또게임, 맛있는 맛없는 많은 식사들..... 평범하지만 하루들이었지만 특별했던!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던 완벽한 여행이었다.
그래, 원래 여행은 이 맛이 ...



내 사랑 Blue Pumpkin을 발견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빵 그리고 감자튀김들...

생각을 많이 한 내 생애 가장 힘든 여행이었다.



일주일 간 마음에 담은 거리, 음식, 사람 그리고 수많은 말과 고민들.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여행.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RaomAtti 13th



Caritas Opening Ceremony



Caritas Opening Ceremony

4월 30일, 까리따스에서 오프닝 세레모니 행사가 있었다. 까리따스 관계자분들, 졸업한 유스들, 그리고 현 유스들까지 약 4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던 큰 행사였다.

오전에는 여러 관계자 분들이 연설을 하신 후,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나누어주었다. 그 이후에는 점심을 먹고 약 12시부터 8시까지 8시간 동안 춤을 추었다.

공식적인 행사라, 깡띠들도 캄보디아 학생들처럼 차려 입고 함께 하였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깡띠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쉬어가는 코너 3

난장 토론



간띠들은 매일 밤 하루 나눔을 한다. 가끔 한 가지 주제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이를 '난장토론'이라 한다. 종교, 결혼, 정치, 이민, 야동... 온갖 주제들로 토론이 펼쳐진다. 어떤 말이 오고 갔을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작성되었다.

옳지 않는 것은 비판해야 마땅하다.
하, 어렵다. 짜증나 _ passion94

짜증나고 머리 아프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_ KCC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_ S2mangoS2

정치

난 이민 갈껀데?
_ 2yeo2

...
_ hehehe95



앞에 소개했던 주제, '정치'는 깐띠들이 틈날 때마다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주제이다.
이번에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가장 뜨거웠던 주제 '야동'을 소개한다.

아직은 더 알고 싶은 ..
미지의 세계? _ S2mangoS2

꼭 필요하진 않지만
...
그렇지만...
_KCC

야동

헤헤헤... >///
_ hehehe95

이제 다들 졸업할 때 되었잖어?
_ 2yeo2

이런 얘기는 해도 해도
신기한 것 같아... ㅎ.....
_passion94





개인 에세이



#즐거움 #흔적

30일이라는 한 달에서의 10일 이상을 새해의 분위기 속에 취해있는 나라. 술이 없어도 완전히 그 분위기에 취해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곳의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부러워졌다. 이곳에서 지금의 나는 술이 없어도 흥에 취할 수 있지만, 돌아간다면 다시 변해있을까 두려워하기도 했다. 우리 분명 많이 다르다. 하지만 또 많이 닮았다. 그래서 무섭고 그렇지만 좋다. 변덕이 심한 내가 무섭고 그렇지만 늘 웃어주는 사람들이 좋다. 내가 머문 자리가 특별한 흔적을 남기길 바라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나라는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미래의 어느 날의 내가 이곳의 흔적으로 아파하고 그리워하듯 나와 같은 누군가가 이곳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었으면 하는 이기적인 하지만 사람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그런 생각을 했다.

#별일 없이

참 별일 없이 보낸 4월의 한 달이었다. 단지 한국에서의 나의 4월은 시험과 과제에 치여 벚꽃을 보는 몇 시간도 사치였지만, 이곳에서의 나의 4월은 밤에 은은히 퍼지는 꽃 향기에 웃음짓고, 아무 걱정 없이 쉬고 또 놀고 그랬다. 한 일은 별로 없지만 그냥 익숙하게 풍경처럼 녹아들길 바랬고 그래서 나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25살의 만찬이 여유로운, 참 할일 없는 4월의 공기가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속에서 벌써 그리워진다.

#관계 #배려 #익숙함 #이해 #두려움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도, 너도, 우리도 누구를 마주하고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편안해지고 무의식 중에 나에게 대해, 너에 대해 모든걸 알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너도 나를 모른다. 네가 했던 그때 그 말로 내가 너를 온전히 안다 말할 수 없듯... 익숙해지고 있다. 나에게 주는 작은 배려들이... 편해지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지고 있기도 하다. 내가 이 익숙함에 너에게 상처를 주기 더 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의지 #되고픈 #하고픈 #그리고

늘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기를 바라면 살아온 거 같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고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길 바라는 사람인 것 같다. 민주가 먼저 내밀고 이끌어주는 손에, 현정이가 말 한마디에, 내 바보스러움을 좋게 받아들여준 승일이와 늘 막내라는 이유로 힘들 텐데 말보다 행동으로 배려해주는 원섭이 그리고 무표정하고 무든 서툴고 종잡을 수 없는 나에게 먼저 웃어주는 수많은 사람들... 이게 내가 모른 원래의 나라면 나는 또 얼마나 많은 가면들로 나를 숨기고 살아온 걸까...



1.

마냥 설레고 빛났던 3월과 달리, 4월엔 내게 어려웠던 것들이 많았다. 4월의 나는 솔직했지만 차분하진 못했던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잘 기다려주지 못했고. 잘 듣지 못했다.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팠다. 다음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는 잘 못했고, 어려웠고, 그럴 때 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앞으로도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것에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다. 하지만 남은 날들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 날들 속에 나는 좋은 사람은 못되더라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다소 짜질하고 요란스럽더라도, 이 사람들이랑 함께 고여있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싶다.

2.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은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틱한 장면들은 허구다. 한국에서의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과 다르지 않다. 아마도 그건 이 일이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다. 삶. 사람 사는 것. 뭐,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산다는 건 사실 매일 흥분되고 신나다기보다는 따분한 날들의 연속인 것 같아서.

나는 왠지 이곳이라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무언가 굉장한 날들을 그려나가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보기 좋게 그 기대는 무너졌고, 실망했다.

하지만 여기 캄보디아,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지만 이런 나날들 속에 특별함이 있다. 그 대화의 순간들, 웃음의 순간들, 눈짓의 순간들. 사소하지만 소중한 장면들을 하나 하나 모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요령인가보다. 역시,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하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미치도록 평범할 내 삶을 위해, 여기서 요령을 잘 익혀 나가야겠다.



가끔 이곳 사람들의 행동에서 차가움을 느낀다.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를 끼치는 존재는 아닐 텐데 왜 차갑게 행동하는 걸까 생각했다. 계속 생각해 보다가 나는 이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나 생각하게 됐다.

이해되지 않는 팀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다름을 이해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라고 느낀다. 왜 그러는 걸까? 뭐가 문제인 걸까? 많은 의문이 들다가 내가 했던 수많은 행동들은 팀원들에게 어떤 의문을 들게 했을까 생각하게 됐다.

남을 보려 할수록 나를 보게 되는 건 내가 계속 반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나의 바람 때문인 것 같다. 나를 반성하게 만드는 이곳 사람들과 팀원들에게 고맙다.



[알 수 없음]

4월, 나는 머리 아프도록, 가슴이 답답해지도록 고민했다.
핑핑 울고, 넘치는 행복을 맘껏 표현하고, 자전거를 타러 나가고,
옥상에서 멍하니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까리따스에서 글을 쓰고, 불편함을 드러내고,
감정을, 생각을 숨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려보고...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딱히 무엇을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변하고 있는 건지 혹은 원래의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하긴, 원래의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변하는 것도 나고, 변하지 않는 것도 나다.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한 뼘 더 차분해지고, 한 뼘 더 변덕스러워졌다.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냥 계속 고민하고, 멈추고, 느끼다가 쉬어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겠다.
지금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캄보디아에서 살아가기]

나는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의 친구, 선생님, 동료 그리고 22살 '나' 로서 살고 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이들이 수업에 오지 않아 마을로 찾아갔다.

왜 수업에 오지 않았냐고 물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티쳐!” 라고 해맑게 웃으며 달려왔다.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공책을 꺼내오는데

잠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다.

그렇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무가 그리 어렵다고 머리로만 고민하고 있었을까.

어둑어둑해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이들과 공부를 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그리 큰 존재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고, 두려움은 크다.

그렇지만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먼저 다가가고, 행동하고, 물들이는 중이다.

[상처 주는 사람]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솔직해지려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상처 줄 수밖에 없다.

맞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손 놓기보다는
각자의 말과 행동으로 부딪히고, 아물게 하고, 흔들리고 싶다.

시간의 장난에 속아

우리의 미안함, 고마움, 불편함이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멀어지지 않고 서로를 두텁게 감싸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1. 어느덧 2개월이 흘렀다. 3월이 익숙하지만 새로움의 연속이었다면, 4월은 복잡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라온아띠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심 나는 이곳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다.

캄보디아는 나와 같은 일반 대학생들이 아닌 의사나 엔지니어,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을 더 필요로 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했고, 그건 어느 순간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거나 느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2. 이곳에 오기 전 스스로 한 가지 약속을 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 이곳에 있는 동안 매일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매일 사진을 찍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던 순간에도 나는 사진을 찍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다. 이곳의 일상과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다.

#3. 내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다. 고민이나 생각이 아닌 지금 당장의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었다. 지속가능성, 자발성, 국제개발협력에 얽매어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이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계속 사진이나 찍으려고 한다.

5월에 만나요